

“외국인 집단감염 대응전략 수립을”

전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 따라 이명연 도의원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 등 필요”

전북도의회 이명연 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은 최근 산발적으로 지속되는 외국인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과 관련해 “전북도 및 각 시·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날 28일 중 앙안전대책본부 가 브리핑을 통해 최근 1주간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확진자가 2,30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6.2%를 차지하지만 외국인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은 65.7%, 2차 접종률은 24.4%로 내국인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이러한 대응책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중인 학교 등을 중심으로 현장등록 및 원소통 집중이 가능한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및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중인 학교 등을 중심으로 백신접종 독려뿐만 아니라 임시예방접종센터 개설 및 찾아가는 방문접종 등 적극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 결집을 통해 확산세가 조기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

전북도 자치경찰 출범 100일 앞두고 봉사활동 장애인 복지시설 찾아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날 30일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립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정부두 접기 등 작업을 함께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면 자원봉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며, 주변의 관심이 떨어져 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자발적인 나눔 활동이 진전된 감동을 줬다.

이명연 위원장은 “자치경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조그만 소리에 귀 기울여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라며 “도민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더 열심히 뛰는 자치경찰이 되겠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30일 출범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게 될 자치경찰 시대 개막을 알리며, 오는 8일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다.

특히, 도자치경찰위원회는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라는 슬로건을 통해 도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고, 더 친근한 치안 서비스로 도민과 함께할 것을 표명하며,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 1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9’로



축! 전주매일 창간

바람 따라 완주 따라

2021-2022 방문의 해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에술열차

작년 119장난신고 전복서 최다접수

알고보니 정신질환자 한명이 269건 중 204건 차지

작년 장난전화 실제 65건 발생

2020년 전국 119 장난전화 665건 중 전복이 269건으로 전국 최다를 차지했다.

지난달 30일 전북소방본부(김승룡 본부장)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도내 2020년 119총신고건수는 52만8,169건이며, 이 가운데 장난신고 전화가 269건이다.

이에, 전북소방본부에서는 지속적인 현장지도와 함께, 주의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119장난전화는 119종합상황실에서 판단하여 출동하지 않는 것으로 거짓신고와 구별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 심각한것은 전북지역 장난전화 269건 중 정신질환자 한명이 신고한 204건(75.8%)으로 나타났다.

강봉화 전북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장은 “거짓·장난신고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력 공백이 발생한다”며 “도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응급상황에만 119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우리 문화 세계 진출 돕자’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무주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국립)’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관학교 설립·운영을 통해 태권도를 통한 우리 문화의 세계 진출을 돕고, 중국의 신 동북공정에 따른 태권도의 정체성 훼손을 막자는 등의 취지다.

위상 확대, 수련인 증가 등을 통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진출, 중국의 신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역할도 기대된다.

지난달 30일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는 제267차 월례회를 무주군의회에서 열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무주군은 이런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대대적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지난해 5월 설립 건의문을 채택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 세계에서 입학생을 모집해 태권도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수준 높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등 관련 기관은 태권도 국제 사관학교 설립에 대해 적극 적극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가(國威)인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향상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호소했다.

또 교육생에게 태권도 품새와 겨루기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신, 가치를 교육해 졸업생에게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 자격을 수여하는 역할을 한다.

강동화 의장협의회장은 “우리 국민과 전 세계 태권도인에게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기 태권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사관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기원 등 관련 기관과 힘을 모아 태권도 성지로 자리매김한 무주에 사관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난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75건

지난 5년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1,375건에 이르고, 지급된 금액 역시 제대로 환수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환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7월까지 연도별 산재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지난 2017년 364건에서 2018년 278건, 2019년 252건으로 매년 감소했

으나, 2020년 34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 7월까지까지 132건으로 총 1,37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휴업·간병·유족급여 등을 부정수급하거나 중증요양(장해) 상태를 조작하는 등 ‘보험급여 부정수령’이 1,163건(징수결정액 129억 1,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재해경위 또는 근로자성을 조작하거나, 사업장·제해자를 바꿔치기 하는 ‘최초요양 승인 취소’가 116건(134억 2,400만원), ‘사무장병원(약국)’이 79건(137억 9,100만원), ‘평균임금 조작’ 17건(2억 5,100만원) 순이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결정액은 총 403억8,500만 원이었으나, 이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총 46억 9,000만 원으로 전체 환수율은 11.6%에 불과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한·일 지역 간 경제교류포럼’ 서 투자 요청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30일 한일경제협력회와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이 주최한 한·일 지역 간 경제교류포럼 2021에 참가해 새만금의 핵심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으로 한 그핀에너지 생산·연구단지 와 RE100이 실현되는 ‘스마트그린산단, 탄소제로 도시’를 지향하는 ‘스마트수변도시’ 조성 계획을 설명하며, 일본 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이날 새만금개발청 교류협력과정은 그린성장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의 핵심사업 추진상황과 전망 등을 설명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

일본 측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스마트그린 산단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플러스트 구축 상황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유호상 기자